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중개자로서의 도서관*

제스 H. 셰라 저음

金正根 옮김

컴퓨터통신 행위란 통신의 발신자와 수신자 간에 일어나는 메시지의 전달 작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때 메시지는 단순한 형태의 신호일 수도 있고 방대한 체계를 갖춘 구두 또는 기록된 기호 내지는 회화형태(繪畫形態)일 수도 있다. 커뮤니케이션은 한 개체의 내부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두 개체 간에 일어날 수도 있으며 어떤 집단의 성원 간에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 때는 매우 커뮤니케이션의 수단 즉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개체 상호간에 공통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언어』가 존재하는 법이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의 피전달자는 복수일 수가 있는가 하면 경우에 따라 전달자는 단수일 수도 있다. 생물체의 경우 신경조직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직사회에도 이처럼 사회적 커뮤니케이션망이 있는 것이다. 이 전체 커뮤니케이션망의 부분 부분이 되는 개체 에이전시(agency)의 정체는 우리가 쉽게 알아 볼 수가 있고 그들의 제반 기능도 이해하기가 손쉬운 편이지만, 반면 사회 내부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근본적인 성격에 관한 한 우리의 이해는 아주 불완전한 형편인 것이다. 인간이 생산해 낸 지식과 정보가 한 문화, 비록 원시 문화일지라도 그 문화의 내부에서 어떤 수단과 통로를 통하여 교류되고 있는가에 대한 우리의 지식의 양은 유감스럽게도 얼마 안된다. 이런 관계로 하여 개체 내부에 있어서의 정보교류에 관한 심리학자와 신경조직계통 전문가의 지식의 양도 얼마 안된다. 사회 내의 정보교류 양상이 마치 전염병이 주민들 사이에 번져나가는 현상에 견주어지듯이 개체 내의 정보교류는 컴퓨터의 전자회로에 비유된 바가 있었다.

물론 사회란 문화 및 제도의 떠로써 한데 묶어진 개인의 집합체인 것이다. 따라서 사회의 성원이 알지 못하는 바를 사회가 알 도리는 없다. 그러나 사회가 갖는 지식의 총체는 그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의 행동양식과는 판이하게 다른 행동양식을 집단행동의 실체에

유발해 내는 수가 있다. 사회가 그 환경과의 사이에 서로 이해하는 관계를 조성시켜가는 방법에 관한 연구가 마거릿·이건(Margaret Egan)의 이른바 『사회인식론』(Social epistemology)이며 이것이 바로 도서관학 이론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다.

기록은 인간 정신능력의 연장인 동시에 이 능력의 정확성을 유지시키는 방편인 것이다. 의미론자의 말을 빌리면 기록은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삼차원의 세계의 시간적, 공간적 거리를 연결시켜 주는 『시간의 징검다리』(Time binders)라는 것이다. 기록문서(document)는 인간의 상호 통신 능력의 연장이며 도서관은 이 기록 문서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수단인 것이다. 도서관은 다른 모든 사회기관과 마찬가지로 사회의 필요에 따라 생성되었으며, 체계를 갖추며, 이미 갖춘 체계를 변모시키기도 하는 것이다. 사회체제를 움직이는 데 필요하거나 종교적인 교리나 의식 또는 사회의 성원이 가담하는 여타 활동에 필수불가결한 메시지를 전달해 줄 매체(媒體)에 대한 사회의 필요에 부응하여 기록이 탄생되었듯이 이같은 기록을 무슨 이유에서건 보존, 통제할 기구의 필요성이 생겨났던 것이다. 도서관은 시초부터 사회를 경영해 가는 『작업』(business)과는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는 불가결의 요소였으며 따라서 도서관은 사회적 필요에 따라 정당하게 탄생한 사회공동의 사업이었던 것이다.¹⁾ 문화가 성숙하고 복잡하여짐에 따라 그 문화의 기록에 대한 의존성이 동시에 커졌으며 따라서 문화의 변천은 사서의 책임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사서들은 파피루스 두루마리를 그냥 지키고만 있는, 말하자면 단순한 파수꾼만을

1) 한마디 삼입한다면, 수세기 동안 도서관은 개인의 사회적 지위의 상징 노릇을 해 왔으며 도서관을 소유한다거나 기증하는 행위는 오랜 기간 신분의 표시가 되어 왔다. 도서관이 도서관을 기증한 사람에게 세워줄 수 있었던 위신이란 것은 사실 커뮤니케이션 중개자로서의 도서관의 효율성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일이었다는 것은 마치 오늘날 값 비싼 자동차를 소유한다는 것이 교통의 수단으로서의 자동차의 의미와는 관계 없는 일이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릇이긴 하지만, 도서관을 사회적 신분의 표시로 보는 인식 그 자체가 사회가 도서관에 매기는 값을 증명하는 것이다.

* 본고는 워낙 The Journal of Documentation Vol. 21, No. 4 December 1965에 발표된 The Library as an Agency of Social Communication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필자인 Jesse H. Shera씨는 현재 Western Reserve University의 도서관학교 학장이다.

아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관장 하에 있는 기록들을 깊이 연구하는 학자들이었다. 그들은 사회의 교육활동, 종교활동에 참가하였고 여러가지 면으로 보아 사회 전체의 커뮤니케이션 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하나의 세력이었다. 중세의 도서관과 르네상스기의 도서관도 이와같이 처음부터 내려온 도서관의 기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아니 하였고 다만 이들 기능을 다른 성격의 통로를 통하여 수행하였다 뿐이며 이것도 사회 환경의 모습 여하에 따라 그렇게 되었던 것이다. 인쇄술의 발명과 과학적 탐구심의 고조는 사서 기능의 증대를 가져왔다. 도서의 양도 구텐버그(Gutenberg)이전 시기 보다는 풍족해졌을 뿐 아니라 이들 도서가 수장된 도서관 또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과학자들의 연구실 구실을 하였다. 17세기로 부터 현대에 들어서기 이전의 시기에 있어서는 과학자들은 자기들의 연구활동을 위하여 참으로 초라한 기구 밖에는 갖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과학자는 자기에게 필요한 지식을 얻는 가장 소중한 면에서도 유일한 원천으로서 자기보다 앞서 간 학자들의 저작에 의존함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된 것이다.

인쇄술의 발명은 그 때까지 소수 특권층에게만 지식을 국한시키고 있던 그 튼튼한 울레를 터뜨려 버렸으며 19세기에 와서는 미국인의 오랜 꿈이었던 보통교육의 실현을 가능케 해주었다. 뉴잉글랜드와 그밖에 대서양 연안의 여러 고을에서 지방도서관확화가 생겨나고 공공도서관이 성장을 보이고 학술도서관이 탄생한 것 등은 사회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짧은 유통 파이프가 깔린 셈이 되었으며 미국 민주주의의 형성기에 있어서 일대 박차를 가한 세력이 되었다.

오늘 날 서구사회에 형성되어 있는 복잡한 커뮤니케이션 체제는 여러가지 도구에 의존하고 있는 바, 도서관은 그중 하나에 불과하다. 신문, 잡지는 말할 것도 없고 전신, 전화, 라디오 및 텔레비전이 우리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양상에 미친 영향이 어느 정도였다는 것은 오래 거론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이들은 또 저마다 도서관의 역할에 영향을 미쳐 왔다. 이들과 함께 사서 편으로도 새로운 자극이 몰려와 사서는 더욱의 목적이며 능동적인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감당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사서는 이제 사물을 예상하고 자료를 축적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는다. 자기들이 축적한 자료를 그 자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관심 속에 들게 하는 일에 까지 적극 나서려고 한다. 과학기술이 조건 지우는 일이지만, 현대사회를 성공적으로 움직여 가는 데 있어서 모든 형태의 기록의 중요성이 점점 증해 감에 따라 사서는 기록된 정보를 학자 뿐 아니라 실업계, 산업계, 정부관청에 까지 편의의 손을 넓힐 수

있도록 새로운 방법과 기술을 모색하여 채택하도록 제촉을 받고 있는 것이다. 효과적인 도서관 이용은 교육에서도 요구해 왔다. 고등교육기관은 물론, 초·중등학교에서도 도서관 이용을 부르짖고 나섰다. 근년 각종 학습활동과 교수활동에 오토메이션이 도입됨에 따라 사서는 커뮤니케이션 중계자로서의 자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갖추게 되었다. 물론 이 도구의 능력은 아직 완전히 실험되어 증명된 것은 아니다.

여러 세기 동안 도서관의 기술과 업무수행 절차에 진전이 있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순전히 가정적(假定的)인 필요와 이 필요에 맞는 방법에 쫓아 지극히 서서히 현실에만 바탕을 두고 진행되어 온 것이다. 사서들이 그들의 도서관을 사회적인 의의를 갖는 기구로서 고려한 예는 지극히 드물었다. 더글라스 포스켓(Douglas Foskett)의 말처럼 사서들은 『사회 속에 존재하는 기구로서의 도서관(공공도서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의 역할과, 어떻게 하면 전문집단(사서의) 전체가 사회 전체에 대하여 가장 훌륭하게 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진지한 고려를』하지 못하였다.²⁾ 이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막상 사서들이 개인과 사회가 지식을 획득하는 방법과 지식이 전파되는 창조적을 알기 위한 수단으로서 증명되지 아니한 가정——추측은 말할 것도 없고——이외에는 의지할 건덕지가 아무 것도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순전히 사서의 책임만도 아니다. 인간이 도서관의 보고(寶庫)를 만나거나 도서관 보고에 접근해 가는 첩경이 되는 서지 도구에 접했을 때 발생하는 그들 내부의 정신생리 과정은 어떤 것일까? 개인이 흡수하는 지식은 무슨 통로를 통하여 한 문화사회의 공동 지성의 부분을 이루게 되는가? 사회 행동은 사회가 흡수하는 지식에 의하여 어떻게 영향을 받는 것일까? 이런 따위가 사서의 면전에 육박해 와 있고 또한 사서의 전문성을 인도해 가야 할 근본적인 문제들인 것이다,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사서만으로 이런 유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하다. 여러가지 직종의 여러 전문가들의 조력을 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나아가 사서는 타직종의 견해를 자기 자신의 세계관(Weltanschauung)에 적용시킬 수가 있으며 또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 사서가 해야 할 연구의 대상은 인간인 것이다.

(옮긴이 : 成均館大學校 圖書館學科 助教)

2) Foskett, D.J., Science, humanism, and libraries. London, Crosby Lockwood, New York, Hafner, 1964, p.239.